

도원스님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가까이서 뵈 큰스님

“불교를 철학아닌 실천으로 알자”



○좌선과 명상을 함께 하면서 늘 부처님 생각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신다는 도원스님.

이 사회는 대단히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살생', '불루도'의 계만 지켜져도 자율적으로 잠글 필요도 없고 남을 두려워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잘 안 지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리고 계는 남을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불살생의 계를 제대로 안 지키니 이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내 남편, 내 아내 누구든 이 혼란스러워져서 그 피해를 자손들이 모두 보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악담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살아야만 신뢰를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술 먹지 말라 하는 것도 술을 먹으면 앞의 네 가지를 다 범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통사고, 싸움 등 모든 것에 술이 주범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못 먹어서 안답이 나고 술 먹지 말라는 것 자체를 우습게 여겨요. 그것은 청소년이나 지키는 것쯤으로 무시해 버리죠.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려면 이 다섯 가지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힘이 들어서 이 다섯 가지를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부처님 하라는대로 하면 제자의 할 일 다하는 것 엉뚱하게 해매지 마세요”

다면 이 사회가 극락세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계율이라는 것이 오직 이 아니라 국가가 만들어 놓은 법령, 규율, 질서 등이 다 계율입니다. 이것을 잘 지키는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교통사고가 왜 남니까? 법규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준법 정신 속에서 살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인욕인데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참을 줄 알아야 해요. 특히 부처님은 육된 것을 참으라고 했거든요. 당장 좋은 것에 빠져들고 싶은 것을 참을 줄 아는 것과 함께 남이 나를 욕되게 하는 것을 참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진 바라밀은 부지런하고 조밀한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다음이 선정인데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텅 비워 놓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엇이든 답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지혜 바라밀인데 분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듯이 지혜로운 이는 분수를 알고 살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분수를 알고 그것에 맞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입니다. 이 여섯 가지를 잘 지키면 행복할 수가 있다고 부처님께서 얘기해 놓았어요. 너희가 행복 하려거든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고 다 제시해 놨거든요. 49년 동안 설하신 법문은 하지 말 것과 해야 할 것. 그리고 진리를 드러낸 말씀으로 요약돼요. 더 이상 뭐가 있어요? 실천 하나도 안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다 설명해 놓았는데 하나도 실천은 제대로 안 하면서 무슨 불법을 따르 구할 게 있나 이 말이지.”

생활 속의 행위를 강조하시는 스님의 일상은, 2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주지직을 맡아온 파계사 시절부터 대비암

불교에 관심을 가진 이들은 많지만 불교의 순수한 형태에 관심을 가진 이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불교의 가르침이나 불교 철학을 공부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한 일본 선사의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그리고 그 선사는 덧붙여 불교가 철학적으로 심원한지, 훌륭한지 보다는 불교가 실제로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불교가 실제로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철학이나 가르침만을 논하는 것보다는 불교를 철학 아닌 경험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가을빛이 완연해지고 있는 팔공산 자락을 휘둘러 찾아간 파계사 대비암에서 도원(道圓) 스님께 들은 법문은 그것이 전부였다.

佛法 어려울 것 없다

“나는 불법을 어렵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처님 제자니까 부처님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것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으면 되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라 하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로서 할 일을 다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불법이 별스럽게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그것이 문제예요. 부처님 가르침대로만 행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섯 수행, 즉 부처님이 설하신 대로 수행하라고 했고 의교봉행, 즉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해서 발들어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이상 더 얘기할 것이 없어요. 한 가지 더 강조한다면 그 속에서 인과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과를 분명히 알고 사리에 밝아야 합니다. 사리에 어둡고 인과를 몰라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지 인과를 분명히 알고, 사리에 밝으면 엉뚱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부처님 말씀대로 행하면 그런이지 불법이 어디 따로 있는 줄 알고 엉뚱하게 해매지 말라는 것이죠.”

“늙은이가 자주 말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다”며 한사코 법문을 마다하시면 스님께서 던진 이 말씀에는 군더더기가 없다. 그것 말고 다른 무엇이 있으면 내놓아 보라는 듯, 기자를 건너다 보시는 스님의 눈빛이 참 맑다.

“부처님 가르침을 많이 아는 것도 좋지만, 일상 생활에서 진실하게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해요. 부처님은 오교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 놓았잖아요. 그것만 제대로 지키면 사람노릇 잘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오직 제대로 지켜주어도

오도승으로 보는 한국불

무산스님

백파선사의 '폼잡'

선사는 조선 영조 43년(1767)에 전북 고창에서 출생하였다. 속성은 이(李)씨 법명은 공선(匡顯), 당호는 구산당(龜山堂), 법호는 백파(白波)이다.

18세 되던해 정종10년(1785)에 선운사에 가서 시현장로(詩憲長老)에게서 유학을 공부하다가 맹자(孟子) 있는 구경(口訣)인 일자출가 구족생천(一子出家 九族生天) '한 자식이 출가하면 구족이 모두 천상에 난다'라는 것을 보고 출가를 하였다. 연곡대사(蓮谷大師)에게서 사미계를 수지하였다.

선사는 화엄학의 거장이던 설파상언(雪坡相彦:1707-1799)회상을 찾아 지리산 영원사(靈源寺)로 향했다.

설파문하에서 수학 일년 만에 구족계를 받아 율종(律宗)의 제맥을 이어받았으며, 선(禪)을 수증하였다. 선사는 29세 되던 해에 영원사를 떠나 백양사 운문암에서 선강(禪講)을 시작하였다.

이 늙은이의 진면목일세. 위로 하늘 아래로는 땅을 버리고 선 그것들. 부처님도 조사(祖師)님도 원래 찾을 길 없구나. 우습도다 그것이 무엇일까. 남북동사에 오직 나 혼자이로다.”

선사는 용문암에서 5년간 수선결사를 마치고 고향의 인근 고을인 장성 백양산 운문암으로 돌아와 최진한 불교계에 새로운 전력을 하게 되었다.

이때 선사께서 설파하신 선강(禪講)은 조사선(祖師傳)의 선구(禪句)하였다. 또한 그때 선구를 정리해 놓은 <선문수경(禪文手鏡)>은 이 무렵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초(草)의(草)의 선사의 선은장의 계기가 된 <선문수경>은 5종의 강요와 어구를 일제의 3구(句)에 배대하여 도표식으로 설명한 역작(力作)으로 3편어 자에 달하는 분량이다.

선사께서는 64세 되던 해에 순창 구암사로 가서 퇴락일로에 있던 가람을

머리카락 더부룩 눈 불거진 모습

이 늙은이의 진면목일세

다시 순창의 구암사(龜岩寺)에 머물렀으며, 읍사로서 강론을 하였다. 45세 되던 해 우연히 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진실한 법은 문자밖에 있음을 깨닫고 그동안 문자를 중심으로 강론해온 것을 참회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서 평안북도 초산(초산)의 용문암(龍門)으로 들어가 용평정진에 몰입하였다. 용평정진 5년만에 심지본연(心地本然)의 본체를 깨달아 확실히 하였다.

중창하였으며, 대규모 선강(禪講)을 열었는데 전국에서 많은 남자들이 운집하여 대성황을 이뤘다. 당시 불교계에서는 선사를 선문(禪門)의 중흥조라 불렀다.

선사께서 설파한 선의 사상은 일제 삼구(三句)에 두고 있다. 즉 대기대용(大機大用), 살활기용(殺活機用)로서 의미를 부각시켰다.

한마음 청정함(佛을 대기(大機)라 하고 마음의 광명(法)을 대용(大用)이라 하고 청정과 광명이 함께 배품어짐(隨)을 기용제시(機用齊施)라 하였다. 그리고 이 삼구(三句)가 하나라고 설파하였으며, 조사선은 마음의 큰 기틀과 큰 작용이 함께 배품어지며 진공(真空)과 묘유(妙有)가 함께 작용하는 살활자재(殺活自在)하는 경지라고 설파하였다. 이것이 선사의 가르침이었다. 선사께서는 최진해가면 조선 후기 불교계에 혜성처럼 나타나 학장(學宗)으로서 힘찬 학문적 업적과, 선의 선강(禪講)으로서 선불교를 부각시켰으며, 읍사(律師)로서 큰 족적을 남기고 정종 3년(1705) 86세를 일기로 입적하였다.

오각(悟覺) 나의 본모습

眞覺覺兮眞卓斯
두봉승혜안락삭
此其老僧眞面目
차기노승진면목
上柱天下柱地
상주천지하주지
佛祖元來見不得
불조원래미볼득
何何何是甚覺
가가가가사심마
南北東西唯是我
남북동서유시아
“머리카락은 더부룩하고 눈은 푹 불거진 그 모습.”

■경주 해회선원 회주

누리공방

불단 · 담집(천궁)
전문 공방입니다. 법상 · 경탁동
박연호 합장

TEL : 031)543-9130
H·P : 011)703-9130
FAX : 031)543-5727

녹용경옥고

경옥고의 효능

《동의보감》에 의하면 경옥고는

- 1) 정이 허한 것을 충진시켜 준다
- 2) 뇌척수와 골수를 보하여 준다
- 3) 인체의 모든 부족함을 보충하여 준다
- 4) 정신력을 충만하게 한다
- 5) 오장을 모두 좋게 만든다
- 6) 빈혈을 고치고 체력을 증진(강장)
- 7) 심장을 강하게 함(강심)
- 8) 소변을 좋게 함(이뇨)
- 9) 인체의 독성을 제거함(해독)
- 10) 피를 북돋움(보혈)
- 11) 신경을 안정시킴(진정)
- 12) 위를 튼튼히 하고 소화를 도움

녹용경옥고
50일분 고환 42만원

문의전화 02) 742-5872
016) 231-5872

현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나?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선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나?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 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도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대.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할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현유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식남염, 구지렁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 얼굴에 뺨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분
■ 빈혈, 저혈압, 신경성질환, 간염, 건강화, 기관지 천식
■ 뼈가 약하며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
■ 각종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분, 불임증, 산후병
■ 성욕감퇴, 편두통, 신장염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분)

“보시금은 백록정사 불사기금에 쓰여집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